

### 말레이시아의 변함없는 동역자들



코비드 19로 인하여 오랜 동안 방문하지 못한 말레이시아에 시간을 내서 방문하게 되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방문하여 수십년을 동역자로 섬기던 현지 목사들과 교수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바하사 프로그램인 삼 신학교 공동학위 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OMF 선교사들이 1976년대에 세운 MBS 신학교를 방문하여 총장을 만나고 곧 이어서

어떻게 학점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졌다. MBS 신학교는 ATA가 인준한 말레이시아의 5개 신학교 중 하나로서 선교 지향적 교육을 시키는 복음주의 신학교이다.

말레이시아는 57%의 말레이 종족이 우선시 되는 정치제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 사람들의 말인 “바하사”를 공식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도 통용되고 있으며 종족 별 (중국어, 타밀어)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말레이어인 바하사인데 이 언어로 교육하는 신학교가 없다. 교회는 이 언어로 수백개가 세워졌지만 설교자는 태반이나 부족하여 평신도 중 바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게 되는 현실 속에서 삼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약 100여명이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증서는 자격증(Certificate) 뿐이어서 목사로서의 자질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길이 열린 것이다.

언어가 교육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바울은 여러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소아시아 다소 태생으로서 당시 헬라의 영향권 속에서 그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소아시아 데살로니가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어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방어 이었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아람어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에게 언어의 능력을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복음은 어느 언어로든지 구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여행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그리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로 회의 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는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한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은 선교사로의 자질을 갖추어 주셨고, 복음 전파에 언어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나의 신념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증거할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언어는 복음전파의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 선교사 훈련원을 2002 에 설립하였다. 한국어로 한국인이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론은 가르칠 수 있겠지만 실질 훈련은 불가능 할 것이다. 필자는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훈련원 원장으로 3 년을 지낸 일이 있다. 언어적인 차원이나 문화적 차원,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말레이시아이다. 선교 훈련이 공동체 훈련, 문화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레이시아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통용 된다는 이점도 있고 동남아시아의 교통 허브가 되어 어디든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영국풍의 삶과 곳곳에 세워진 고층 빌딩들 그리고 잘 닦여진 고속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려 진 도시는 매력 그 자체이다. 더욱이 친절하고 질서 있는 도시 쿠알라룸푸르 최상의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물가가 지극히 싸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모든 음식점 브랜드가 있으면서 가격은 후진국 가격으로 나와있어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 모델과 면적은 남한의 3 배가 되지만 인구는 3300 만의 인구로 살다 보니 많은 공간적 여유가 있다. 이러한 여유 때문에 환경이 쾌적하고 삶의 여유가 있어 싱가포르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말레이시아로 몰려와 저들의 주말을 즐기고 돌아가곤 한다. 이러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에는 많은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내는 사역은 협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